

“고객·주주·직원 위해 최고의 가치 창출 할 것”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 취임 100일 맞아 ‘강소 금융그룹’ 도약 선언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JB금융지주의 전략방향에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은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JB금융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현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장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회장은 취임 후 100일간 JB금융그룹의 핵심 가치 확대 등 주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경영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지주사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가져왔다.

먼저, 김기홍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직후 지주사 ‘조직 슬림화, 핵심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주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와 자회사 간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한편, 자회사의 자율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룹의 경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지주사는 기존 4본부 15부에서 4본부 10개부로 축소됐고

지주사 인원도 30% 가량 감축됐다. 조직개편과 세대교체로 조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면서 투명 경영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 골격을 갖췄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김기홍 회장은 지난 100일간 기본에 충실한 내실 위주 경영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며, 적정 자본비를 조기 달성을 위해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 확보에 힘을 써 왔다.

자산성장보다는 내실성장에 치중해 ROA, ROE 등 수익성 지표를 그룹의 최대 전략목표로 설정했으며,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은 연고지 영업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자회사 별 핵심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후 배당재원을 축적하여 향후 배당을 점차 확대하는 등 주주 친화적 경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종 사업비를 절감해 지주사에서만 올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 6월 지주사 및 계열사 임원들과 함께 책임경영 의지를 다지는 한편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자사주 약 33만주를 매수했다.

김기홍 회장은 “JB금융지주 주가가 내재가치 및 경영실적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의 모든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룹 계열사 경영진의 자율적 자사주 매입이 그룹의 새로운 책임경영 조직문화를 확산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고 밝혔다.

혁신금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김기홍 회장은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김기홍 회장은 오픈뱅킹플랫폼(OBP) 비즈니스가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끝내는 등 사전 준비단계가 완료됐다는 판단 아래, 향후 본격적인 비즈니스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이 중심이 되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플랫폼 관련



직원들을 각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인력재편을 완료했다.

김기홍 회장은 “현행 금융관련 제도와 법규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맞도록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역할을 확실히 나눠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미래 금융트렌드에 부응하며,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내부 경영성과 평가 1위 달성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맞추어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도 내부 경영성과 평가'에서 도내 10개지사 중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다.

9일 무진장지사에 따르면 내부경영성과 평가는 도내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매출액달성 ▲영업순익 ▲재정조기집행 ▲청렴도향상노력 ▲고객만족도 ▲농지은행, 지역개발, 생산기반 등 사업별 추진실적 등에 대한 계량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가치 실천노력도 ▲지역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구매관리 등에 대한 부서의 성과를 측정하여 선정한다.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우수요인을 살펴보면 고객만족도 1위, 청렴

도평가 1위, 지역개발사업평가 1위, 정부권장정책 구매관리 1위 등 전 직원의 노력과 지사장의 체계적인 경영관리에 주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교준 지사장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역 농업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이번 평가결과로 직원들의 긍지 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직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올 한해도 쌓아 올린 경영성과의 기틀위에 한 단계 높은 경영관리시스템 구축과 주요 고객인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뉴욕 제이콥 K.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된 '뉴욕 K-Food Fair'에 3만 명의 뉴요커들이 방문하여 K팝의 흥과 한식의 맛을 맘껏 즐겼다.

“수출에 필요한 지원,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세요”

전북중기청, 18일까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내수기업 포함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기업에 최대 0.8억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금년도 추가 지원기업을 7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투자처에 걸친 '수출바우처' 사업 외에 도내 기업의 수출 수요에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에 나섰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단체 전시회 해외바우처 등 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지원되었던 사업을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에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수

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규모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업별로 0.3억에서 최대 0.8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은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100억~300억은 60%, 300억 이상기업은 50%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로 지급받은 범위내에서 디자인 개발, 전략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과 운, 오프라인 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1,000여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

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기업은 7월18일까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jeonbuk)에 게시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북중기청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고 유용한 정책”이라며, “추가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이 한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희준 수출전문관(063-210-648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K-POP에 들썩, K-FOOD에 엄지척!

aT, 뉴욕서 K-Food Fair 성료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CJ ENM 주관으로 열린 전 세계 최대 K컬처 컨벤션인 'KCON 2019 NY'과 연계하여 뉴욕 제이콥 K.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된 '2019 뉴욕 K-Food Fair'에는 총 3만 명의 뉴요커들이 방문하여 K팝의 흥과 한식의 맛을 맘껏 즐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밀레니얼 세대 한류 팬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을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국의 거점도시에서 열린 글로벌 K-Food Fair를 올해는 최초로 CJ의 KCON 행사와 함께 개최했다.

K-Food Fair 부스에는 총 55,000명의 KCON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방문했을 정도로 젊은 뉴요커들은 K-Food의 맛에 열광했다.

K-Pop을 이을 한류 콘텐츠는 K-Food라 할 만큼 흥과 인기는 방문객과

대기줄로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행사는 '한국 농식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K-Food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구성하여 전통관에는 배·사과 등 신선농산물, 미래관에는 한국 농식품 수출을 선도할 인삼, 삼계탕 등의 건강식품과 오미자와 곤충식품 등 수출 유망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요리학 교인 CIA 출신 셰프들이 현지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킨 매운 쌀쌈 돼지고기와 오미자쌀쌈 등은 순식간에 동이나 미쳐 맛을 보지 못한 방문객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미국 수출 인기품목인 라면, 떡볶이 등을 시식한 방문객 제니퍼(17세, 여)씨는 “KCON에 참여하는 그룹멤버가 가장 좋아한다는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 이곳에서 처음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K팝 스타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떡볶이를 앞으로 마트에서 자주 사먹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7월 26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청약상품으로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에 농협은행에서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120명을 추첨해 1등(1명) LG노트북, 2등(5명) 다이스 선풍기, 3등(20명) 에어팟 2세대, 4등(100명) 스머프 머그컵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농협은행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재된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본인의 SNS(인스타

그램, 페이스북)에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톱장 인증샷을 올리면 총 200명을 추첨해 스머프 머그컵세트와 스머프 피규어책을 증정한다.

김장근 본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과 함께 이벤트 마련한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